

보도실명자료

(15.11.2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「한-중 FTA 늦어 하루 40억 손해? 수입증가
빼고 수출만 계산」 (15.11.26, 한겨레)

1. 기사내용

- 정부는 제조업 1년차 수출증가액(13.5억달러)을 근거로 한-중 FTA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 40억원 손해가 발생한다고 강조
- 그러나 중국산 제조업체품 수입증가(1년차 13.4억불), 농림 수산업 부문의 피해, 관세 인하로 인한 관세수입 감소(하루 39억원)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(개요) FTA 체결에 따른 주요 효과는 양국간 전체적인 무역규모의 확대임
 - FTA 발효시 무역 확대로 생산증가 및 소비자후생 개선, 수출입·생산·판매·유통 관련 일자리 창출 등 경제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
- (수출증가) 한·중 FTA 발효시 對中 수출관세가 낮아져 제조업 부문에서만 1년차에 약 13.5억불의 수출증가 예상
 - 그러나 한·중 FTA가 연내에 발효되지 못하면 1년차 수출증가액이 금년에 발생하지 못하고 발효 이후로 미뤄짐
 - 이는 한·중 FTA 발효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이자, 한·중 FTA 발효를 기다리고 있는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손해임

- 1 -

- (수입증가) 한·중 FTA 발효시 첫 해에 제조업 부문에서 약 13.4억불 수입이 증가하나, 이를 단순손실로 보기는 어려움

- ① (소비자) 수입증가시 다양하고 저렴한 수입제품이 늘어남에 따라, 소비자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후생이 증가*

* 한·중 FTA 발효시 10년간 소비자후생은 총 146.26억불 증가(KIEP)
- 소비자후생은 FTA가 발효되기 전 가계가 구입했던 상품목록을, FTA 발효 후 동일하게 구매하고 남은 금액으로 측정

- ② (기업) 완제품을 생산·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중국산 부품·소재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어 가격경쟁력이 향상

- 또한 우리 기업이 부품·소재를 조달할 수 있는 해외공급처가 다양화되고, 한·중간 경쟁력있는 국제분업체계(global value chain)를 형성하는 효과도 발생

- ③ (산업구조) 내수기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중국산 경쟁제품 수입증가로 여건이 어려워질 수 있으나,

- 이에 대응하여 기업은 기술개발·품질개선 등 경쟁력 향상 노력을 기울이고, 이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

- (관세수입 감소) 한·중 FTA 발효시 對中 수입관세 철폐·삭감으로 관세세수 및 수입분 내국세가 감소하나,

- 양국간 교역규모 확대로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이 제고되고 실질 GDP가 추가성장(10년간 0.96%)하여 법인세, 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수입이 약 1.69조원 증가

-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따른 내국세 수입 증가분이 관세수입 감소분을 상쇄하여 10년간 연평균 2,698억원 규모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
* 한·중 FTA 영향평가 세수효과(10년평균, 단위: 조원)(KIEP)
: (관세수입감소) -1.42 + (성장에 따른 세수증가) 1.69 = (전체세수) 0.27

- 2 -